



KEB하나은행은 지난 10월 16일 영국 금융전문 리서치기관 PBI誌 (Private Banker International)가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제25회 Global Wealth Awards 2015'에서 글로벌 프라이빗은행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자산관리명가로서의 명성을 대외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같은 기관으로부터의 4년 연속 수상이며, 국내 유일의 수상이다.

PBI誌, 제25회 Global Wealth Awards 2015 선정

‘글로벌부문 우수 포트폴리오시스템’ 및 ‘북아시아 지역 우수 PB은행’

KEB하나은행은 영국 금융전문 리서치기관 PBI誌로부터 ‘2015 글로벌부문 우수 포트폴리오시스템’ 및 ‘북아시아 지역 우수 PB은행’으로 선정됐다. 지난 10월 16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제25회 Global Wealth Awards 2015’에서 KEB하나은행은 글로벌부문 포트폴리오 관리시스템상인 ‘Outstanding Wealth Management Technology Initiative-Front End’와 북아시아 지역부문 우수 프라이빗 은행상인 ‘Outstanding Private Bank-North Asia Regional Player’를 수상했다.

영국에 본사를 둔 PBI誌는 글로벌 프라이빗뱅킹(Private Banking) 및 웰스매니지먼트(Wealth Management)에 특화된 PB 전문 리서치기관 매체로서, 매년 주관하는 ‘Global Wealth Awards’를 주관하고 있다. 이는 1987년부터 시작된 PB 어워드로서 유사한 어워드 중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

며, 심사기준이 엄격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KEB하나은행은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2012년 같은 기관으로부터 ‘동아시아지역 최우수 PB은행(Outstanding Private Bank-East Asia)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13년에는 ‘글로벌 최우수 PB육성 및 개발프로그램 운영 프라이빗 뱅크(Outstanding RM Training & Development Programme)상’을 받은 적 있다. 또한 작년에는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최우수 웰스매니지먼트 서비스 부문(Outstanding Wealth Management Service for the Affluent Segment)에서 수상한 바 있다.

PBI誌 관계자는 KEB하나은행의 선정 이유를 “PB 지원 시스템인 ‘하나PB시스템’과 이를 태블릿PC에 확대·적용한 ‘태블릿PB시스템’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으며 ‘하나포트폴리오 조기진단시스템(Hana portfolio Early-Analysis and Diagnosis)’을 통해 위험을 감

안한 고객수익률 관리 시스템 등이 높은 점수를 받는데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같은 부문에서 KEB하나은행은 Credit Suisse, 홍콩의 IT 기업 Contineo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으며, 북아시아 지역 우수 프라이빗뱅크 수상부문에서는 홍콩의 The Bank of East Asia, HSBC Private Bank와 함께 수상하면서 해외 금융시장에서 한국 금융기관의 자존심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앞서 KEB하나은행은 2014년 말 더 뱅커(The Banker)/PWM誌로부터 글로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상, 2015년 2월 유로머니誌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총 8회 수상) 등을 수상해 해외 기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해외 우수 매체들로부터 최고의 Private Bank로 인정받은 바 있다. 앞으로도 KEB하나은행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PB 브랜드가치를 보유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